

중국 노동자의 의식변화와 단체행동 : 2010년 자동차산업의 파업 및 그 영향력

왕간(王侃) (중국 노동관계학원 노사관계학과 교수)

■ 머리말

2010년 5월 17일,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 광둥성에 위치한 '난하이(南海) 혼다 부품제조 유한회사' (이하 난하이 혼다)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1,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난하이 혼다의 파업으로 인해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중국 내 혼다자동차의 생산이 마비되었다.

5월 28일 파업은 베이징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성우하이텍으로 확산되었고, 5월 29일 미국 크라이슬러와 합자한 베이징 지푸어(吉普)그룹 역시 파업에 돌입했다. 6월 18일 텐진(天津) 도요타 제2 자동차 공장도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7월 중국 정부는 언론기관에 파업과 관련된 보도를 금지시켰지만, 자동차산업의 파업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러한 파업의 주동자와 참가 주체는 농민공들이었고,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강한 집단 의식과 단체행동력을 보여주었다.

중국 국무원 정책연구실과 중앙 노동부문의 연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농민공은 이미 중국 노동시장의 주체가 되었고, 2차 산업 분야에서 농민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를 넘어섰으며, 3차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 현재 중국의 농민공 수는 2억 8,000만 명에 달한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농민공이 중심이 된 중국의 노동자는 집단 의식과 투쟁력이 약하다고 여겨왔다. 농민공은 소득과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농촌 지역 출신으로 이들 대부분 가정의 연간 순수소득은 제조업 노동자의 한 달 소득에 해당하는 1,500~2,500위안 정도이다. 그래서 1978년 개혁개방 이

래로 농민공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착취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비록 농민공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착취에 맞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저항한 예가 있지만, 이러한 저항은 기본적으로 비조직적이고 간헐적이었으며, 지역 또는 산업을 초월한 형태의 파업은 지금까지 출현한 바가 없었다.

자동차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이익이 가장 높고, 노동조건이 가장 좋은 산업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은 이미 미국을 앞질러 세계 우수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최대 시장이 되었다. 정부의 가격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가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교적 양호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은 숙련노동자들이고, 이들의 노동조건과 복리수준 역시 기타 산업 또는 직업에 비해 좋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자동차산업의 파업 물결 중 파업이 발생한 기업들의 노동조건은 법률 규정에 부합했고, 임금도 현지의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파업 참가자의 절대 다수는 농민공이었고, 대부분이 비교적 양호한 교육을 받은 젊은 숙련노동자였다. 반면, 전통적 자동차 공업 지역인 후베이성과 지린성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연쇄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 노동자 대부분이 현지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 토박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및 복리 등의 노동 대우는 파업 농민공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들 대부분은 다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응하지 않았다.

■ 농민공 동원에 대한 노동자 조직¹⁾의 작용

노동자 조직과 노동운동가는 농민공의 집단 의식 및 권리의식 향상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업 물결이 일기 전 중국 농민공들은 통상적으로 집단적 저항의식과 권리의식이 매우 낮았다. 2004년 중국사회과학원이 진행한 전국적 표본조사에 의하면, 농민공들은 비록 불법적인

1) 노동자 조직은 '정부, 공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자주적으로 결성된 민간 노동단체'를 말한다.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해 보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광둥의 중산대학(中山大学)이 실시한 주강삼각주 농민공 조사보고 역시 농민공 계층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농민공의 집단 의식과 단체행동의식은 매우 희박했고, 사회 제도가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농민공은 저항이 아니라 주강삼각주 지역을 떠나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조사는 노동자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농민공 지역사회와 공장 내의 상황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다. 2010년 6월 현재, 중국에는 이미 100여 개의 독립된 노동자 조직이 있고, 2,000명 이상이 ‘노동분쟁 공민 대리인(劳动争议公民代理人)’으로 종사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래, 중국 정부와 관방 공회(노동조합)의 통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조직과 노동분쟁 대리인들은 노동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동자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광둥성 선전 지역의 풀뿌리 노동자 조직인 <봄바람 노동분쟁 서비스센터>와 <작은 풀 노동자의 벗 서비스센터>의 노동자 교육 및 서비스사업은 각기 소재한 노동자 지역사회에서 40만 명 이상의 농민공을 아우르고 있다. 베이징, 선전 및 선양 지역에서도 분과 기구가 있는 작은새 노동자 상호 핫라인을 구축하였고, 2003년부터 라디오 방송에 전문 농민공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지금은 연간 청취자가 50만 명에 이른다. 동시에 농민공을 대리하여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다수의 독립된 공민 대리인들도 노동자의 법률의식과 권리의식의 향상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대리하는 농민공과 관련된 노동분쟁은 대부분이 집단적 노동분쟁이다²⁾.

사실상 많은 노동자 조직의 지도자와 독자적인 공민 대리인은 금전적인 목적으로 노동운동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 이런 표리부동한 도움이나 농민공들에게는 권익보호에 대한 값진 경험이 되어 주었다. 많은 농민공들은 자신들이 겪은 권익보호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과 단체행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베이징의 <행동노동자센터>의 발기인 마양(马阳)은 “나 자신이 농민공이고, 수많은 노동분쟁을 경험했다. 나와 내 주변의 많은 노동자 친구들은 노동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조직해 일어나 서로 돕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2) 역자 주 : 중국에서 집단적 노동분쟁은 시장경제국가에서와 같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인 이상 노동자와 사용자 간 공동성 또는 연관성을 가진 노사관계상의 권리의무로 발생한 노동분쟁을 의미한다.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정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 물결의 근원지인 난하이 혼다는 대부분의 일선노동자와 현장관리자가 농민공이다. 공장의 노동조건과 임금 대우는 난하이 현지의 평균 수준보다 높았고, 모든 관리도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기업 내부 관리 제도의 제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일반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진행되는 단체협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난하이 혼다의 일부 숙련 노동자들은 일찍이 다른 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노동자 조직의 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자 조직이 제공하는 법률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 노동자 단결과 집단인식을 다소나마 이해하고 있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난하이 혼다는 이윤 감소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연장근로를 축소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 사이에 높은 불만을 사게 되었다. 현지 인터뷰 과정 중 만난 한 파업참가 노동자는 “우리가 단결하지 않았기에 사측이 우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처럼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계란이 배로 비싸졌지만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임금 문제로 두 명의 베테랑 숙련노동자와 혼다 공장 측에 분쟁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농민공 출신으로 전문적으로 노동자 사건을 대리하는 공민대리인 장 아무개를 찾아갔다. 장 아무개 공민대리인은 이 두 사람이 신속하게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측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법정 노동분쟁처리절차를 거칠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사측이 합의를 받아들여 이도록 하기 위해 두 사람은 협상을 위한 특별한 히든 카드가 필요했다. 장 아무개는 두 사람이 공장과 기숙사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파업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시 소문을 관리자들에게 말하면 효과적으로 사측의 기선을 제압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이 퍼뜨린 소문을 접한 공장의 동료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일선노동자 출신 농민공으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5월 17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앞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두 명의 노동자는 이미 영향력을 잃었다. 5월 20일과 21일, 노측과 사측은 두 차례에 걸친 노사협상을 진행하였다. 파업참가자들은 임금인상, 사후 파업참가자들을 해고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 재결성 등 6개항의 요구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공민대리인 장 아무개는 현 시점에서 파업을 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파업에 참가한 농민공 그 누구도 장 아무개와 두 명의 노동자를 이번 파업의 지도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5월 22일, 사측이 사내방송을 통해 두 명의 파업 주동자를 해고한다고 밝히자 오히려 이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부품공급에 차질을 빚은 광저우 혼다와 동풍(东风) 혼다 등 대형 완성차 공장은 생산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이후 1주일 동안 사측은 두 차례 임금 및 생활수당의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파업에 참가했던 일부 노동자들 역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파업은 조기에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5월 28일 노동자들이 업무 복귀의 뜻을 내비쳤을 때, 사측은 돌연 노동자들에게 ‘향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지도, 조직 및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파업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본래 화해를 생각했다. 현재 누가 누구를 겁내는가? 생산이 없으면 회사가 입는 금전적 손실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5월 29일, 사측은 보다 강경한 조치로 노동자들에게 5월 31일 9시 전까지 자필 서명한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파업에 참가한 한 여성노동자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고, 또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사측은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에 복귀할 수 없고, 사람들의 파업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난하이 혼다의 파업은 6월 8일까지 지속되었고, 일본 본사와 중국합자인 광저우 자동차그룹의 책임자가 노동자들의 모든 경제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한 후 비로소 난하이 혼다의 노동자들은 생산에 복귀했다.

이번 자동차산업 파업 물결의 진원지인 난하이 혼다의 파업은 농민공 계층 내의 집단불만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집단불만은 도화선이 되는 한 사건을 통해 폭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분쟁 공민 대리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공민대리인이 파업을 계획한 목적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파업 과정에서의 역할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대부분의 노동자와 현장관리자들은 자발적으로 파업 소문에 반응하고 파업을 조직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민대리인이 내세운 구호가 노동자계층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파업참가자들이 이미 노동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노동자 조직의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고,

이러한 노동자들은 단결과 단체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지도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끝까지 파업을 사수할 수 있었다.

■ 촉매제로서의 언론매체

광둥성 난하이 혼다의 파업은 처음부터 중국 중앙 및 지방 관영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관영 언론매체의 보도는 난하이 혼다 파업이 전국적인 파업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중국 내 대부분의 노동자 조직의 영향력은 해당 지역 노동자 지역사회 및 공장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노동자 조직은 지역을 뛰어넘어 노동자 행동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경험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매체는 지역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행동을 실행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파업 물결 중 언론매체는 일반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 방송국(CCTV)와 신화사(新华社) 등을 포함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모두 '자동차산업'과 '농민공'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특히 강조했다. 중국의 자동차산업 분야 가운데 완성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부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술수준이 낮고, 단순한 상품을 생산하는 저급한 노동자들이라는 인식에 기인해 이들을 경시해 왔다. 베이징 현대그룹과 텐진 도요타 제조공장의 노동자들은 일전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단순한 부품제조 노동자들이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난 후, 완성차 공장의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그들보다 '뒤쳐졌다'고 느꼈다.

이 외에도 언론매체는 파업과 농민공을 결부시켰다. 중국 자동차산업에는 많은 농민공이 고용되어 있다. 농민공 파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자동차 생산노동자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또 파업을 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농민공 출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장들이고, 주로 현지 출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영 언론매체의 파업과정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이후의 파업참가자들에게도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다. 예를 들어, 뒤이은 도요타 등 파업노동자들이 제시한 업무복귀 조건도 기

본적으로 처음 발생한 난하이 혼다 노동자와 거의 비슷했고, 심지어 많은 어휘들은 거의 똑같았다. 현지 인터뷰에서 베이징 지푸어(吉普)에서 일하는 한 남성 농민공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그들이 파업을 하자 우리도 파업을 하고 싶어졌다. 인터넷에서 그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 물결에서 언론매체의 참여 정도는 보도 그 이상이었다. 가장 먼저 파업이 일어난 난하이 혼다에서 언론매체는 노사쌍방 협상의 전개과정에 개입했다. 5월 29일, 난하이 혼다의 파업이 12일간 지속되는 동안 사측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고, 당국은 공장 외곽에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일부 파업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취재 중이던 ‘재경(财经; 중국에서 발생 부수가 가장 많은 경제관련 간행물)’의 기자가 노동자대표에게 ‘재경’이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자는 노동자대표가 파업노동자들을 취재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을 협조해 주기를 희망했다. 기자는 ‘재경’ 베이징 본사와 친분이 있던 저명한 노사관계 및 노동법학자 창카이(常凱) 교수에게 파업노동자들의 법률 고문의 자격으로 곧 있을 노사협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협상 내용을 제일 먼저 ‘재경’ 기자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6월 4일 오후, 난하이에 도착한 창카이 교수는 바로 노사협상에 참가했다. 4시간여의 협상을 거쳐, 난하이 혼다는 ‘독립노동조합 결성’을 제외하고 모든 요구안을 수용하였다. 협상이 끝난 후 기자는 전화를 통해 파업노동자들에 앞서 창카이 교수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았다. 6월 5일, ‘재경’은 다른 언론매체보다 앞서 관련 기사를 인터넷상에 보도했고, ‘재경’ 6월 첫호에 상세하게 실었다. 그 보도 시간 및 내용의 깊이 모두 국내외 모든 언론매체보다 앞섰다.

언론매체의 파업 진행 과정에 대한 참여는 중국 국내 언론매체 시장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대중과 노동자계층이 파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언론매체가 난하이 혼다 파업의 형세를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노동자 법률고문 창카이 교수는 파업 공장에 단지 몇 시간만 머물렀고, 노사협상이 있었던 그날 밤 난하이를 떠났다. 노사가 합의를 본 그 다음날, 많은 노동자들은 외부 인사가 자신들을 대표해 사측과 협상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법률고문으로 창카이 교수를 선출한 것은 파업참가자들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협상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월 5일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하하였고, 사측과 노동자대표가 다시 만나 직접 합의를 본 6월 8일까지 파업은 지속되었다.

중국의 언론매체는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언론매체규제기구인 중앙선전부는 긴급 통지를 하달해 관영 신화사의 보도지침에 따라 파업 사건을 보도하고, 또한 모든 언론매체는 보도 중에 ‘파업(罢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조업 중지(停工)’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파업과 관련된 보도는 현격히 감소했다. 베이징과 톈진 등지의 파업에 대한 보도는 현지 파업은 노사쌍방의 협상을 거쳐 하루 이내에 종료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이러한 보도는 연구자의 현지 모니터링과 많은 차이가 있다.

관영 언론매체는 중국 노동운동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의 지속성은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번 파업 물결에서 언론매체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의 집단 의식과 단체행동의식을 효과적으로 환기시켰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농민공들의 상호학습 및 공동행동을 취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언론매체는 시장화와 정부의 관리 및 통제라는 양방향의 압력을 받고 있고,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파업 과정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매체 종사자들이 농민공의 요구와 행동력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관영 언론매체 종사자의 친노동자적 성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향후 더욱 더 친노동자적 성향의 보도를 하게 될 것이다.

■ 표류하는 공회

파업 물결로 인해 중국 공회는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법률은 일원화된 공회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공회에 종속되어야만 합법적으로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다. 두 달 이상 지속된 자동차산업 파업 물결로 대중, 노동자 그리고 정부는 공회의 이미지 및 작용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파업 기간 중 각 지역 공회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고, 중앙과 지방의 공회들은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5월 31일, 난하이 혼다의 파업참가자들이 생산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각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후, 현지 난하이구(区) 총공회와 쓰산진(狮山镇) 공회는 150여 명의 지역공회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파업 현장에 투입했고, 이들과 파업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측이 이미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용했으므로 노동자들은

즉시 생산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지역노조 간부들이 파업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자 노동자들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구타를 당했다. 당일 쌍방의 두 번째 충돌 직후 공회의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되자 공회간부들은 버스를 타고 공장을 떠났다. 6월 1일, 일본 혼다 및 국내 합자 파트너인 광저우 자동차그룹의 건의 하에 지역 총공회는 <혼다자동차 노동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발표해 오해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총공회는 사측의 건의에 따라 간부들을 더 이상 공장으로 보내지 않았다.

파업 물결 전, 공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독립·비노조노동자 조직의 빠른 확산은 공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을 의미한다. 총공회의 자체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2억 2천만 명의 노조원이 있고, 농민공 중의 60%가 이미 공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농민공은 자신들의 공회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다. 중산대학 노동연구센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회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힌 농민공은 단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 시작된 자동차산업의 파업 중 노동자들은 공회의 개혁을 원했다. CCTV를 포함한 관영 매체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공회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중국 공회는 줄곧 매우 특수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다. 공회는 한편으로는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노동자 권익을 유지·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기업 및 노동자계층 3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줄곧 공회 이론계의 최대 과제였다.

또한 중국 공회의 체계는 상명하달식이 아니고, 중화전국총공회 등 상급공회는 단지 지방공회에 대한 업무지도 역할만 있고, 행정예속 관계와 업무지휘 관계는 없다. 각급 지방공회는 동급의 공산당위원회와 지방정부의 지휘를 받는다. 기업공회는 기업 공산당위원회에 직접 업무보고를 하고, 기업주 또는 부총경리가 기업 당위원회의 서기를 맡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 하에서 각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지역을 초월한 공회의 연대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 지역 내에서 지방공회가 당, 정부 및 노동자 등 3자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정치활동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의지가 굳건한 공회 지도층이 있어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의 공회 체계로는 능력이 뛰어난 간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공회의 간부는 공무원 신분이고, 일단 공회 지도업무에 능력을 발휘하면 그는 정부의 기타 직위로 승진을 함으로써 공회 체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의 연쇄파업에 직면한 중국 공회는 중국 노동자 특히 농민공 계층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식했다. 각급 공회는 신세대 농민공의 특징을 연구하고 있고, 신세대 농민공이 기존의 농민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연유로 집단 의식과 행동 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기업 방면에 있어서 중화전국총공회는 기층공회의 개혁을 통해 노사관계 중 공회의 역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총공회는 기업공회 간부의 직접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공회법’과 ‘기업공회조례’는 기업공회의 간부선거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총공회는 파업 물결을 이용하여 기업공회의 주석과 간부선거 및 능력배양을 속히 추진하길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총공회는 단체협상을 가속화하여 기업별 단체협상을 기초로 지역성 단체협상 업무를 촉진하고, 단체협상과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임금인상기제와 결합하여 매번 단체협상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총공회는 작업장 정보통신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총공회는 작업장 내 정보통신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노동자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장 정보통신원 제도 수립에 힘썼다. 그러나 지방공회와 중앙공회 간에 정보통신원 제도의 운영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이 제도의 수립은 순탄치 않았다. 각급 공회들은 작업장의 정보통신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동자, 특히 농민공 가운데 정보통신원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기업과 노동자의 변화를 제때에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 공회의 개혁안은 공회의 전통적인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0년 6월말 중화전국총공회가 소집한 전국 공회간부 수련회에서 총공회는 공회의 핵심 임무가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지속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동시에 수련회는 공회간부들에게 노동자 조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고, 사회와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노동자 조직의 위협, 즉 노동자 조직이 국제반중세력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현 공식 노조체계를 벗어나 제2노조 설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

중국 정부는 노사관계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정부가 조화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노동법제와 노동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평화를 보장한다. 2003년부터 정부는 여러 가지 지도성 문건을 제정했고, 농촌 노동력의 이주와 농민공의 산업 부문에의 취업을 장려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노동조합 건설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2008년 ‘노동계약법’을 포함한 몇 가지 노동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노사관계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할 법률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자 단체행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법률 제도가 노동자의 개별적 노동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래로부터 위로 그리고 공식적인 공회 체제 이외의 노동자 집단의식과 단체행동의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와해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색깔혁명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민간 조직의 힘, 특히 노동자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염려케 했다. 2008년 베이징시는 ‘중추형 사회조직(枢纽型社会组织)’ 설립을 통해 민간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제도를 공포하였고, 노사관계 영역에 대해서는 공회가 노동자 조직을 지휘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노동자 조직이 등록을 해 비영리성의 비정부 조직이 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회의 동의를 얻고 공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009년 광둥성 정법위원회는 노동자를 위해 노동분쟁 사건을 대리하는 공민대리를 불법 변호사로 간주하는 통지를 발표하여 활약하고 있는 공민대리인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통지는 노동자 조직의 농민공 계층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사람들의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 다수의 노동자 조직이 국제적 반중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점, 노동자 조직의 발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권익보호 활동에 열성적인 노동자 조직들에 대해 엄격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법제 건설과 노동자 권리의식, 집단의식의 향상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법률에 대한 선전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 비록 현행 노동, 공회와 관련된 법률체제는 노동자가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경성화된 법률조문을 해석한다. 이번 파업 물결 중 파업이 발생한 모든 공장은 법에 따라 운영되었고, 고용관계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동법률을 준수하였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기업이 노동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노동자들은 법률 조항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측이 관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참여권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여부에만 관심을 가졌다.

전국적으로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파업이 발생한 이후, 중국의 실질적 정책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5월 29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는 파업노동자의 요구안과 행동의 합리성을 인정하였고, 노동조합이 파업 처리 및 파업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상무위원회는 파업 중 조직화된 협의 역량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갖고 각급 정부가 노사협상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국내외 반정부 세력이 노동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7월 13일, 파업 문제가 심각한 광둥성 정부는 <인문관심 강화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人文关怀改善用工环境的指导意见)>을 공포하여 기업, 정부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인문(人文) 요구를 고려하고, 노동자가 자신들의 관점을 표출할 채널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정부는 노사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업 중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측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간여했다 하면 파업노동자의 경제적 요구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 이는 또 노동자들이 사측과 실질적인 노사협상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고, 파업의 주요 목적이 정부를 압박하여 정부가 나서서 사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파업은 종종 폭력적인 사건으로 발전한다.

이번 자동차산업 파업 물결에서 각급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사협상에 개입하였다. 난하이 혼다를 포함한 모든 파업 기업에서의 노사협상은 정부가 주재했고, 최종적으로 사측이 노동자의 모든 경제적 요구를 수용했다. 비록 몇몇 관리자는 기업 노동조합을 재결성할 생각이 있지만, 정부가 주관한 노사협상은 노동자가 제기한 노동조합 개혁에 관한 모든 요구를 거절했다.

정부의 노사협상 개입은 노사쌍방의 '건설적 대화에 대한 염원'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파업 물결에서 파업을 했던 기업만이 임금인상과 복리처우가 개선되었고, 파업을 하지 않았던 기업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현재, 중국 국무원은 매년 임금이 이윤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기제를 건립하고, 파업이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현상의 상태화(常态化)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임금조례(工资条例)'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 구체적 효과가 어떠할지는 아직 더 관찰해 보아야 하겠다.

■ 결론과 토론

이번 자동차산업계 파업 물결은 중국 시장화 개혁 후 노사관계와 노동자 의식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한국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산업화와 사회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의 자주의식과 집단의식은 자연적으로 출현할 것이고, 생산과정과 집단행동과정 중의 공동적 경험 배양을 통해 중국 노동자의 단결의식과 조직능력은 부단히 향상될 것이다. 노동자, 특히 생산의 주체인 농민공의 집단의식에 대한 자각은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공회와 정부의 노동제도 개혁에도 압력을 가했다. 중·단기간 내에 중국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역량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더 많은 투쟁 경험과 조직능력을 갖춘 노동자 활동가 대오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노동자들은 오직 단결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KLI**